

‘광주김치’ 미국시장 개척 나선다



18일 광주지역 김치제조업체 대표들과 세계김치연구소, 광주시 관계들이 미국 수출길에 오른 2.5t 규모의 김치를 선적한 컨테이너 차량 앞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빛고을김치 등 4개사 2.5t 수출... 10월12~15일 'LA한인축제' 참가도 세계김치연구소 컨설팅 성과...市, 제품 개발 지원 등 경쟁력 강화 나서

광주김치가 미국시장 개척에 나선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세계김치연구소가 '수출 마케팅 및 시장개척 컨설팅사업'을 추진한 결과, 광주지역 김치제조업체 4개사에서 광주김치 2.5t을 미국으로 수출 계약하는 성과를 냈다. 미국 수출에 참여한 김치업체 4개사는 빛고을김치, ㈜김치타운, ㈜제자연, ㈜해담촌이다. 100% 국내산 원부재료를 활용한 고급 프리미엄 김치를 제조하고 있으며, 배추김치와 갓김치 2.5t을 미국 LA(Los Angeles) 시장에 선보인다. 일반적인 김치수출 단가는 kg당 4000원 내외인

데 반해 이번 수출은 배추김치 7000원, 갓김치 8000원으로 높은 가격으로 수출이 성사됐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빛고을김치 등 김치업체 4곳은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미국 LA 서울국제공원(Seoul International Park)에서 열리는 'LA한인축제'에도 참가해 '광주김치 맛보다'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현지인을 대상으로 홍보·판촉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도 지역 김치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김치제조업체의 내수시장 확대와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와 '중견적용 상품 김치 개발', '광주김치 품질안전관리 지원', '유럽연합(EU) 복합식품 인증 절차를 활용한 유럽연합(EU) 시장 진출', '일본 기능성표시제도를 활용한 일본수출제품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김치수출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장업국장은 "지역 김치업체들의 LA수출길 확보 성과는 향후 해외 수출 확대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LA한인축제에 광주김치는 물론 다양한 광주 대표 식품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에이스페어’ 2억달러 투자 상담

4일간 3만5000명 방문...인도 제작사와 애니 공동 제작 MOU도

국내 최대 콘텐츠 종합 전시회인 '광주 에이스페어'에 3만50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가고, 2억 달러 규모의 투자 상담 성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4~17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3만 5000여명이 방문했다.

국내의 기업들은 914건, 2억 달러 규모 수출 상담을 했다.

광주 애니메이션·실감콘텐츠 기업 스튜디오지바바는 인도 대형 애니메이션 제작사 하이테크 애니메이션과 100만달러 규모의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역 애니메이션 기업인 ㈜스튜디오버튼은 중국 '바인톡 크리에이티브(유)'와 다이노맨 시즌 1, 2 영상 배급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4월 중국 내에서 주라기갑스1을 방영한다.

또 세계 33개국에서 400개 콘텐츠 기업이 참여해 다채로운 콘텐츠와 신제품도 선보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콘텐츠 전문가,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해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했다"며 "K-콘텐츠 산업의 교두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민들의 친구 '찾아가는 영화관'

무료 상영·사진 촬영 등 호평...다음달 곡성 입면·신안 자은면 방문

전남도의 '찾아가는 영화관'이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영화 상영에 그치지 않고 직접 마을 영화를 제작하거나 사진 촬영, 마을 달력 제작까지 도민들의 문화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사)전남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영화관'은 영화를 쉽게 접하기 어려운 지역을 방문해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는 사업으로 2014년 처음 시작했다. 이후 점차 영역을 확대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 제작은 마을 지명과 유래 등 마을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지역특산물을 홍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동용 스크린과 빔프로젝터를 활용해 영화관을 만들고, 제작된 마을 영화와 지역민이 선호하는 영화를 상영한다. 단 하루 상영되는 마을 영화는 영화의 주인공이 무대 앞으로 나와 소회를 밝히며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또 미리 촬영한 장소 사진과 증명사진을 전달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마을 풍경과 마을주민을 배경으로 달력을 제작해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전시회도 진행한다.

'찾아가는 영화관'은 오는 10월 곡성군 입면과 신안군 자은면을 찾아갈 예정이다.

김성원 전남도 문화산업과장은 "찾아가는 영화관은 단순 영화 상영을 넘어 도민들에게 문화 참여 기회를 드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원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역 총선 입지자들 "이재명 체포안 부결해야"

농가 저온피해 복구비 225억

민주당 당론 채택 촉구...더민주광주혁신회의, 정권 퇴진 요구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에 광주·전남지역 일부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이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정진욱 민주당 당 대표 정무특보,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 최치현 전 청와대 행정관은 18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표가 병원에 실려 간 지금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야당 탄압이자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술책이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일처단결해 검사 독재 정권과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는 지역에서 열흘 이상 동조 단식투쟁 중인 정진욱 특보와 김영선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 박노원 민주당 부대변인 등이 연명했다.

식발이나 천막 농성 등을 통해 이 대표를 지지한 김문수 당 대표 특보, 정의찬 당 대표 특보, 조계원 민주당 부대변인, 박권택 당 대표 법률특보, 강위원 당 대표 특보도 동참했다.

민주당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광주혁신회의' 이정락 운영위원장과 김성환·정준호 상임운영위원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동의안 부결과 윤석열 정권 퇴진,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지난 4월 저온피해를 입은 농가 복구비로 225억원이 확정됐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복구비는 지난 4월 7일부터 3일간 기온이 영하 2℃ 이하로 떨어져 과수 착과 불량, 양파 잎마름 등 저온 피해를 입은 1만 929농가(7144ha)에게 이달 중 지급된다.

시·군별로는 나주 1734ha, 무안 1297ha, 순천 640ha, 신안 558ha, 광양 457ha 등으로, 품목별로는 양파(2383ha)가 가장 많고 배(2095ha), 매실(916ha), 복숭아(398ha), 단감(308ha) 등이다.

피해 농가는 농약대나 다시 씨를 뿌리는 비용인 대파대, 생계비 등의 지원을 받는다. 채소와 과수의 농약대 지원 단가는 ha당 250만 원이다. 50% 이상 피해 시 지원하는 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130만 원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영록 지사 "남부권 관광 개발 도울 것"

도민과의 대화...윤림산별초공원 개선 도비 5억 지원 약속

전남도가 '진경(珍景)-진도산해도경 프로젝트'를 비롯, 진도의 문화예술 자원을 바탕으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8일 진도군 실내체육관에서 김희수 진도군수 등 지역민 200여명이 참석 가운데 열린 도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256개의 섬과 유서 깊은 역사·문화유산 등 매력 넘치는 관광 자원 등을 다수 보유한 진도는 청정한 자연 속에서 격조 높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도시"라며 "인문지유 관광루트 명소화와 세방낙조 아트문화 관광명소 조성사업 등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진도군이 추진하는 '진도산해도경 프로젝트'가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됐다"며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도 관광이 한 단계 도약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도군은 이날 지역 내 대표 명소로 이용객은 늘고 있지만 시설이 노후한 윤림산별초공원(한옥체험관)의 개선을 위한 도비 5억 지원을 건의해 김지사의 지원 약속을 받았다.

김영록 지사는 "진도가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을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외 진도군민들은 오산들녘·옹배수로 개·보수, 신조도대교 건설, 전북 양식어가 출하보전금 지급,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진도군 지방어항 승격, 근내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생명의당 전남 함께발전 대한민족!

JEONNAM
2023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2023.10.13.~10.19.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023.11.3.~11.8.

주최 대한체육회

주관 전라남도

주최 전라남도교육청

주최 전라남도체육회

주최 JNSAO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KSPC